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발행(2020. 6. 30)
제2020-6월호(통권 54호)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ISSUE PAPER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스포츠팬 그리고 스포츠의 미래

유상건(상명대 일반대학원 스포츠ICT융합학과)

Ⅰ 여는 글
Ⅱ ‘코비드 시대’의 불확실성
Ⅲ 스포츠 ‘상실의 시대’
Ⅳ 스포츠 ‘뉴 노멀 시대’
Ⅴ 닫는 글
Ⅵ 참고문헌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Ⅰ. 여는 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현생인류는 스포츠를 창안했다. 지금까지 지구 위에 존재했던 그 어떠한 종도 하지 못한 일이다. 오직 인류만이 만들고 즐겨 왔던 스포츠는, 세계화(globalization) 물결을 타고 전 지구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다. 그러나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 현상으로 인해, 인류 삶의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폐쇄와 축소, 연기'라는 극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이 프로와 아마추어 스포츠 등 관련 산업은 물론이고 스포츠팬에게 미친 파급(괴)력을 우리는 매일 실감하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현상(sporting phenomena)을 스포츠팬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향후 전개될 스포츠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 현상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어떤 풍경(landscape)이 그려진다. 이를 '스포트스케이프(sportscapes)'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스포트스케이프'라는 개념은 Appadurai가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에서 제시한 '에스노스케이프(ethnoscapes)'에서 착안됐다. 스포츠팬들의 스포츠 경험이 미디어를 통해 표출되고, 그들의 체현된 표현이 드러내는 일련의 전경을 의미한다. 이 같은 풍경은 '스포츠 스타, 스포츠 활동, 스포츠팬의 가상 세계(imagined lives)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함께 '유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스포츠와 관련된 의식의 흐름'까지 포함한다(Yoo et al., 2018).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스포트스케이프'라는 용어는 기존에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Stoddart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스포츠 현장의 성 평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스키 문화에서는 여전히 '남성성 편향의 스포트스케이프'(2010)가 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정 스포츠와 관련해 문화적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미디어를 통해 나타난(mediated) 의식의 변화를 담아내지는 않았다. Bale은 스포츠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적 영역과 특정한 장소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스포트스케이프'란 용어를 사용했다(Dyreson 재인용, 2008). 단순히 지리적인 뜻으로만 개념을 한정했다. 스포츠경영학에서는 더욱 제한적으로 사용됐는데, Shank와 Lyberger는 '스포츠케이프(sportscape)'는 경기장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며, '경기장 접근성, 시설의 미적 요소, 전광판의 품질, 좌석의 편안함, 공간 배치의 접근성'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이상학 외, 2017). 경기장이라는 공간에만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좁은 의미로만 사용했다.

지금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미디어 폭발' 시대다(유상건, 2020). '스포트스케이프'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출현과 디바이스의 다변화, 인터넷 공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면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 국내외 미디어와 해외에서 출간 예정인 책의 논문을 통해, 지금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풍경을 살펴보자.

Ⅱ. ‘코비드 시대’의 불확실성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스포츠의 미래(The future of sports)’라는 50쪽 짜리 보고서가 발간됐다(Dellaware North, 2015). 이 보고서는 경기장, 방송, 선수, e스포츠, 팬, 팀과 리그, 스폰서십, 티켓, 익스트림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25년 후를 예측했다. 스포츠가 2040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그려본 셈이다. 경기장을 예를 들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경기장 설계 시 비디오 장막(video wall)이 고려되며 경기장에서는 홀로 그래픽으로 경기 장면을 재확인하고 3D 안경으로 관람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에 선수들은 부상방지와 안전을 이유로 유전학의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으로 부터 1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인간이 로봇과 대결하는 일은 없겠지만, 인간 vs. (유전과 과학의 힘으로 능력이 극대화된) 인간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 봤다. 스포츠팬과 관련된 내용은 급진적이다. 팬은 다양한 미디어 기기에 연결된 채, 무한대로 네트워크가 확장 가능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등에 업고 팀과 리그와 스폰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권좌’에 올라탄다. 더욱이 수십 대의 중계카메라가 배치됐다 하더라도 어떤 팬은 늘 미디어 보다 더 현장에 가깝기 마련이다. 미디어 종사자들은 고성능의 웨어러블 비디오 장치를 통해 찍은 팬의 영상을 구걸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된다. 프로팀의 스카우트는 스포츠팬이 만든 영상과 인공지능(AI)의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단순한 팬

Technology is radically chang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ns and the teams they love. → The amount of content produced by fans uploading video streams and images of live games (from smartphones inside the arena) will regularly exceed the amount generated by official broadcasters — and will be seen by more people. → Teams will designate fan-appointed ombudsmen to represent fans in major team decisions. Fan-sourced input will be common. → Mobile devices and augmented-reality headgear will display the statistical advisability of plays and audibles before they happen. Monday-morning quarterbacking will be real-time (i.e., live during the game), with crowdsourced polling generating play-calling recommendations ("Give it to Marshawn Lynch!") faster than the coach on the field can get the real play into the huddle.

CONTRIBUTING FACTORS

01 The feedback loop of social media and the 24/7 news cycle have given fans unprecedented influence on team and league decisionmaking.

02 Mobile devices: The power of networked smartphones continues to accelerate in step with Moore's Law, making every fan a one-person broadcast studio.

WHO'S FOLLOWING

Fans are looking past traditional media gatekeepers and directly to teams and leagues to get their sports information.

Circulation — major newspapers		Twitter followers	Twitter followers — sports league & team accounts	
2,379,000	Wall Street Journal	5,570,000	38,800,000	NBA
1,865,000	New York Times	14,700,000	32,615,000	NFL
1,674,000	USA Today	1,410,000	23,400,000	UFC
654,000	Los Angeles Times	1,200,000	18,914,000	MLB
516,000	Daily News	278,000	14,000,000	NHL
501,000	New York Post	716,000	6,474,000	NASCAR
475,000	Washington Post	3,800,000	3,608,000	MLS

"The balance of player, team, fans, and media has shifted. Fans no longer just watch. They participate, analyze, critique, deconstruct, fantasize and connect with their favorite players and teams in real time. Thanks largely to digital innovation, being a sports fan has never been so emotionally charged, or fun, as it is today. Over time as fans have gotten more and more organized, the virtual monopolies teams and leagues have enjoyed have been broken. You can't drown out a crowd if you flagrantly do things that they don't believe in. Organizations have to be able to react a lot faster in this new world and have an increased tolerance for mistakes and missteps. You have to figure out your values and be true to them. Leagues and teams will have to learn how to communicate with authenticity or be ignored."

THE FORSEEABLE FUTURE

For the forseeable future, fans will expect increasing access, increasing content, and connection anytime and on their terms. The leagues and franchises that will lose in this new environment will be those that fight these new tides, attempting to serve up games, highlights, and access to athletes only through certain channels that they control. The winners will be those leagues and teams that embrace and partner with these new boisterous and unpredictable brand ambassadors.

THE FAN

그림 1. 미래 스포츠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망 (출처: The future of sports)

에서 권력을 가진 '수퍼팬'으로 지위가 격상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근사한 때로는 그럴싸한' 전망을 선보였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에도 바이러스에 의해 일그러질 스포츠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바로 5년 후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가 왜곡될 '코비드 시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략 25만년을 생존했던 인류가 앞으로 25만 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동료 학자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열에 아홉 명은 생존 불가로 베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기가 성립될 수 없었죠". 지구의 역사라는 시간으로 보면 찰나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인류에게는 허락되지 않으리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인류는 그동안 페스트를 비롯해 에볼라바이러스, 스페인독감(인플루엔자A),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다양한 바이러스와 싸워 왔고 끝내는 이겨 왔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활발해진 국제 이동을 이유로 전례 없는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류는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퍼펙트 스톰'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치사율이 50%에 육박하는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만 기초해도, 장기침체는 물론이고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인류의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은 전면적으로 위축과 역성장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당연히 스포츠 영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상헌 고용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인 '봉쇄 세대(lockdown generation)'가 등장할 것으로 우려한다(경향신문, 6월 6일).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청년층이 노동현장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이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질도 낮아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다. 소비와 여가, 취향과 경험에서 확실히 다른 호모 콘수무스(homo consumus, 소비하는 인간)의 등장은 기존의 스포츠에게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Ⅲ. 스포츠 '상실의 시대'

그 많던 스포츠는 다 어디로 갔을까? 사라졌던 스포츠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 4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0개 이상의 스포츠 관련 조직에게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투써클즈(Two Circles)는 스포츠 계에 음울한 소식을 전했다. 올해 열릴 예정이던 5,000명 이상의 입장이 예상되는 스포츠 경기 중 53%에 불과한 2만 6,424개의 경기만이 개

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SPN은 관련 보도에서 올해 세계의 스포츠 산업 매출은 616억 달러(한화 약 67조원)가 축소돼, 737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4월 21일자). 그러나 이 수치는 전 세계의 코로나 확산 추세가 완전히 벌어지기 전인 것이 문제다. 한국의 야구와 축구 등을 비롯해 분데스리가 등 해외의 스포츠 리그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20 도쿄올림픽은 연기됐고 상황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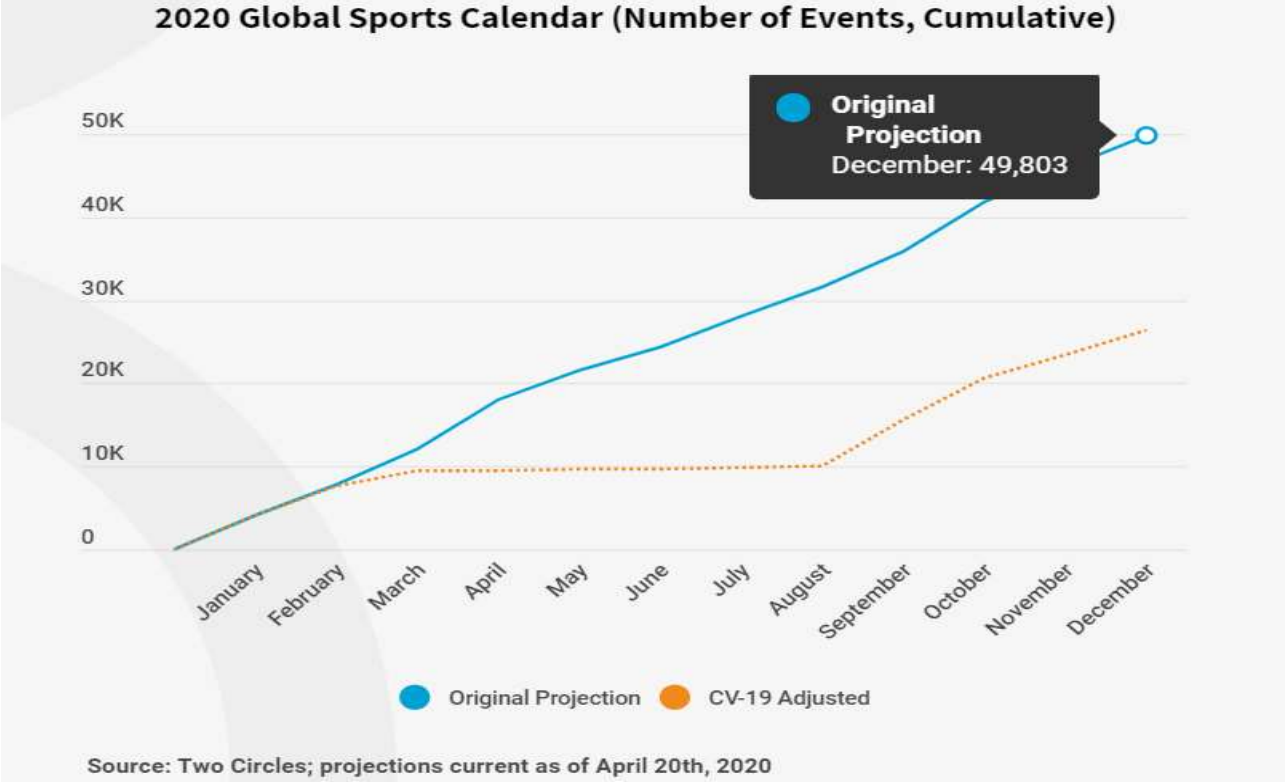

그림 2. 전 세계 글로벌 스포츠 경기 취소 예상 (출처:Two Circles)

그동안 경기장에는 늘 선수가 있었고, 응원하는 팬이 있었으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쏟아졌었다. 그것은 반드시 선수들의 플레이에만 국한됐던 것은 아니다. 아래 사진은 열혈 야구팬이 8개월 된 아들을 안고 파울볼을 잡는 장면이다. 놀랍지 않은가. 티파니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아마도 소녀시절 부터 야구장에서 캐치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야구라는 경기의 매력에 시나브로 빠져 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삶에 야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마이너리그 경기를 보러 가면서도 글러브를 챙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는 스포츠 경험, 생활화된 스포츠 활동, 모여서 함께 응원하는 것이 일상화된 스포츠 관전 문화.... 파울볼이 날아오는 순간, 그녀는 번개처럼 일어나 손을 뻗었고 공을 잡는데 성공했다. 한 장의 사진이 과거 스포츠풍경의 많은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당분간은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다.

그림 3. 아이를 안고 파울볼을 잡아내는 여성 야구팬(출처: Richmond Times-Dispatch)

다음의 사진은 어떤가. 이 사진은 2016년 아틀란타 브레이브즈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간의 스프링캠프 경기에서 8살짜리 아들을 향해 날아오는 배트를 아버지가 막아내는 장면이다. 모두가 날아오는 배트를 보고 피할 때, 소방대장인 션은 힘껏 팔을 뻗어 대형사고로 부터 아들을 구해냈다. '소방대원 모드'에서 '아빠 모드'로 전환한 그는 경기장에서 우리의 감탄과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물론 이 소방대원은 방송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 나온 아내로 부터 "애초에 경기장에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지만 말이다.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에피소드는 언제나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한 곳에 나란히 앉아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을 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이 두개의 장면은 모두 스포츠가 경기장에서 생생하게(lived) 진행됐던 '코로나 시대' 이전 시대의 추억이다.

그림 4. 경기 중 날아오는 배트로 부터 아이를 구하는 아버지(출처: MailOnline)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팬의 코로나 이후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올해 말 출간 예정인, 'Sport and the Pandemic' 논문들을 입수해 살펴봤다.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 미국 등 각국의 스포츠팬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시민운동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스포츠 경기의 중단을 통해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등 (경기장에서 사라진) 스포츠의 힘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코로나 시대의 스포츠팬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독일의 축구팬들은 과거에도 활발한 서포터스 활동을 함은 물론 스포츠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캠페인에 참여하고, 항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Gang, in press). 분데스리가가 멈춰 섰을 때, 팬들은 소셜 미디어인 WhatsApp 등을 통해 활발히 소통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응원팀을 달리하는 다양한 그룹과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쌓았다. 경기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대신, 팬클럽 회원이라는 한계를 넘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방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또한 독일 내 공중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동시에 독일축구리그(DFL)의 개혁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코로나로 인해, 평소 소극적이었던 축구팬들까지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시민행동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폴란드의 스포츠팬 활동은 더 극적이다. 지난 3월 4일 폴란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선언한 후 9일 만에 폴란드 축구리그는 중단됐다. 폴란드 최고의 축구 리그 소속인 Korona Kielce의 팬들은 "당신이 없다면 우리도 없다(Without You There Won't Be Us)"는 기치 하에 위생용품, 깨끗한 물, 식품 등을 모아 지역 헬스센터에 전달했다. 선수들 또한 이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팬 활동의 일환으로 평소 아동병원을 후원했던 '좋은 사람들- 어린이를 위한 Legia 팬'들은 아동병원의 환자와 부모는 물론 직원들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Mazurkiewicz, in press). 물론 이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하다.

이스라엘의 충성스런 스포츠팬들도 예외 없이 '스포츠라는 일상으로 부터 단절된'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스포츠팬은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모바일 앱 사용이 40%나 떨어졌다고 한다. 이스라엘 스포츠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 또한 어쩔 수 없이 마이클 조던의 '더 라스트 댄스'나 '죽을 때까지 선더랜드'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Tamir, in press). 이스라엘 스포츠팬은 스포츠 중계가 사라지면서 가족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했고(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사라져), 사회적 교류의 진공상태로 고통 받았으며(스포츠라는 대화 소재가 고갈됨으로써), 정서적 박탈감을 느끼기 까지 했다(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해). 스포츠에 열광했던 이스라엘인들은 과거 경기를 반추하는 노스탤지어에 빠지거나 온라인 스포츠게임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1918년 미국의 스포츠팬들이 느꼈던 절망감과 2020년에 느끼는 팬의 상실감은 결이 다르다. 과거에 팬들이 빼앗겼던 스포츠는 야구와 권투, 대학미식축구 정도에 불과했

기 때문이다. 프로풋볼리그(NFL)는 1920년이 되서야 탄생했고, 오늘날의 팀과 리그 수는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Pedersen & Williams, in press). '스포츠 천국'인 미국에서 스포츠는 사회적 인식을 깨우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작동해 왔다. 무하마드 알리에서 콜린 캐퍼닉에 이르기까지 인종차별에 대한 운동선수들의 저항이 있어 왔으며, 911 이후 열린 뉴욕 양키스의 경기는 미국인들을 위로했다. 또 유방암의 위험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포츠 리그 등 스포츠와 사회적 의제는 항상 긴밀히 연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와 관련해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질문은 크게 3개의 섹션으로 분류됐는데 하나는 스포츠 관련으로, 예를 들어 'NCAA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러진다는 뉴스를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게 됐는가'와 같은 내용이었다. 또 다른 섹션은 정부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뤄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여행을 금지한 뉴스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게 됐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마지막 섹션은 스포츠나 정치가 아닌 일반적인 내용과 관련된 질문으로 '톰 행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고백했다는 뉴스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게 됐는가' 같은 내용이었다. 응답자 중 23.4%는 스포츠와 관련된 발표를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통해 알게 됐다는 비율은 60.7%였다.

Ⅳ. 스포츠 '뉴 노멀 시대'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단어는 벤처투자가인 로저 맥나미(Roger McNamee)가 처음 사용했고, 채권운용사 최고경영자인 모하마드 엘 에리언(Mohamed A. El-Erian)이 저성장, 소비 위축, 규제 강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떠오른 세계경제의 특징을 지칭한 이후 많이 사용되고 있다(두산백과). 자본증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산운용가들이 만들어 낸 용어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서의 모습을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유용한 면이 있다.

스포츠의 미래를 가늠할 때, 스포츠 '뉴 노멀 시대'의 도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표준이라는 점에서 새 질서를 얘기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의학적 위기가 개인위생과 기초 체력의 중요성에 눈을 뜨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사람들의 인식을 일거에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바이러스의 등장은 '그 어려운 것을 단번에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해냈다. 스포츠의 효용성 중 하나가 체력향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늘 인식과 행동의 탈동조화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때 보다도 개인적인 신체 면역력 증대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사람들은 스스로 행동에 나서게 됐다.

과거에는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던 홈트레이닝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야다. 온라인 동호회를

통해 훈련 하는 '홈트족'이 대표적이다. 홈트족의 강사의 이력이 다양화 되는 추세인데 요즘은 체육 전공자 외에 경영학, 미술 전공자는 물론, 의사도 등장한다. 홈 트레이닝을 위한 관련 영상 제작이 활발한데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연한 국민체조 영상을 유튜브(대한체육회TV)에 올린데 이어 영어판 'K-Fit'을 만들어 전 세계 205개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 종목별 국제연맹(IF)에 배포했다. 시기적절한 발 빠른 대응이다. 나만을 위한 무료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집에서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식사와 생활 습관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홈 트레이닝 캘린더까지 받아 볼 수 있다. 골프 세계랭킹 1위 로리 맥길로이는 홈트레이닝 회사가 운영하는 펠로톤(Peloton)이라는 실내 자전거 운동의 고수임이 밝혀지기도 했다(골프한국, 4월 29일자). 자전거에 올라 탄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운동량을 보고하고 직접 온라인 지도도 받는다. 또한 저 너머 어딘가에서 나와 같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경쟁한다. 이 경쟁은 비대면 시대의 스포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아래의 사진은 피트니스 센터에 갔다 우연히 마주 친 장면이다. 피트니스 전문 강사가 한 기관의 의뢰를 받고 집에서 직접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하는 장면이다. 많은 카메라가 등장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조명도 없이 기관 직원을 상대로 '가볍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홈트레이닝 열풍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림 5. 홈트레이닝 촬영 모습 (출처: 저자)

홈트레이닝과 함께 스포츠 관람에도 '언택트(untact)' 문화가 큰 특징이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대규모로 관중이 모이는 스포츠 행사는 불가능하다. 비접촉, 비대면 형식의 스포츠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스포츠팬들은 경기장이 아닌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경기를 즐기고 있다. 관중이 없는 경기장에 들어서는 선수는 발열체크를 하고, 출입시간을 기록하며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은 경기 내내 온라인으로 연결된 채 이들의 플레이를 즐긴다. 이 같은 서비스는 KT와 SK 야구단이 대표적이다. 이들 구단은 비대면 라이브화상 응원전을 진행하는데 팬들은 경기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해 영상과 음성, 응원메시지를 전달한다. 덴마크의 축구팬들도 무관중 시대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통해 응원을 하고 이는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무관중 시대가 낳은 뜻하지 않은 즐거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프로골프의 경우 다양한 이벤트 경기를 기획하기도 했다. 톱프로 골퍼들이 반바지에 직접 백을 메고 라운드를 도는 장면은 평소 같으면 시즌이 한창이라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매치플레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최근에 열린 한국여자오픈에서는 경기장에 위치한 콘도의 발코니에서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이색적으로 들렸다.

그림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달라진 경기장 풍경 (출처: 경향신문 2020년 6월 5일자)

또 다른 현상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적 운동(ecological sports)이 전면적으로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골프와 자전거, 등산이 대표적이다. 골프장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편승해 카트비나 그린피를 올리는 부작용이 나올 정도다. 골프는 4명이 함께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운동인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아 외국으로 빠져 나갈 골퍼가 합류한 것도 큰 이유이지만 자연에서 이뤄지는 골프라는 운동이 갖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골프장이 '코로나 해방구' 가 된 셈이다. 자전거도 전성기를 맞고 있다. 한때 산악자전거(MTB)가 인기를 끌었고 로드바이크(싸이클)를 거쳐 생활자전거까지 가세했다(한국경제, 6월 6일). 등산과 함께 도심은 물론 강과 들로 연결되는 자전거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홈트레이닝과 등산을 즐기기 위해 레깅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데 전국의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분석에서 스포츠용품 매출이 전년 대비 60%나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회복과 스포츠를 위해서는 일단 고무적이라고 판단된다(중앙일보, 6월 11일).

스포츠와 ICT(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가속화, 전면화의 길로 갈 것이다. 축구팬들은 이제, 프로축구연맹이 내놓은 '집관 프로젝트'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TV 중계를 보게 된 것이 그 예다. K리그 미디어센터 구축은 보다 향상된 중계화면의 질과 콘텐츠 다각화를 가능하게 했다. 중계카메라 플랫폼이 새로 설치됐으며 카메라 위치도 경기장에 가깝게 배치돼 현장감 있는 앵글을 즐길 수 있다. 그래픽 일원화와 함께 다양한 각도와 선수별 하이라이트 제공 등 콘텐츠의 다양화도 '언택트' 시대의 탈출구로 각광받을 것이다(경향신문, 5월 1일자). 디지털 스포츠 활동을 위한 시도는 스마트 폰과 온라인, 유튜브 채널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상업적인 목적 이외에 스포츠 관련 단체나 지자체가 홈 트레이닝 비디오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다. 오산시 체육회는 'ICT 기반 스포츠 정보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홈트레이닝 체조 제작, 학교스포츠클럽 비대면 사업 프로그램 도입, 시민리그 정보전달 및 대회 운영, 스포츠 종목의 운동량 누적시스템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경인일보, 6월 15일). 국내에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된 이후 스포츠ICT는 스포츠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스포츠와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스포츠의 외연과 내연을 확장할 것임은 확실하다. 특히 기존의 스포츠가 제공할 수 있는 즐거움과 의미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스포츠의 도입도 가능하며, 과거에 느낄 수 없었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스포츠 라이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해 눈에 띄는 스포츠의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Ⅴ. 닫는 글

전례 없는 인류의 위기 앞에 스포츠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과 마주치고 있다. 리그는 중단됐고, 선수들은 경기할 장소를 잃어버렸으며 팬들은 경기장에서 사라졌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무너졌고 스포츠팬들은 이 같은 현실에 좌절해야만 했다. 여전히 상황의 끝이 언제인지 불투명하다. 코로나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5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찾아올 것이라는 경고는 미래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러나 스포츠는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스포트스케이프'는 언제나 스포츠팬이 그래왔던 것처럼,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조금씩 리그가 재개되고 있으며 선수들은 경기장을 달리고 있고, 팬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또 연대의 소중함과 협력의 힘을 깨달았으며, 우리 각자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것이 소득이다. 스포츠와 건강은 함께 하기 마련이다. 바이러스가 적응하고 진화하듯이 스포츠도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경인일보(2020, 6, 15). 오산시체육회 'ICT기반 스포츠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615010003700

경향신문(2020,6,6). 한국에 'IMF 세대' 있듯, 전 세계에 '봉쇄 세대' 생겨날 수도. http://news.khan.co.kr/kh_today/today_view.html?artid=202006061126 47&code=940100

골프한국 4. 29일 자전거 위의 괴물에서 골프 세계 1위로 돌아온 맥길로이. http://golfhankook.hankooki.com/01_news/NewsView.php?gsno=10237003

두산백과. 뉴 노멀.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55991&cid=40942&categoryId=31863

유상건(2020). 스포츠 저널리즘: 코너스툴과 라커룸. 서울: 도서출판 지금.

중앙일보(2020, 6, 11). 재난지원금 '약발' 안 먹히는 지역, 서울엔 딱 네 군데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858

한국경제(2020. 6, 6). 코로나가 소환한 '자전거 열풍.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60644i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차원현, 채호석, 배개화 역(2004). 고삐 풀린 현대성. 서울: 현실문화연구.

Cheung, S. Y. & Mak, J. Y. (in press). The Effect of Covid-19 on Hong Kong Sports. Sport and the Pandemic.

Dyreson, M. (2008). Prologue-Cathedrals of sport: Mapping new territo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25(11), 1420-1426.

ESPN(2020,4.21).Agency: Coronavirus to cancel nearly half of scheduled sports events in 2020. https://www.espn.com/espn/story/_/id/29072667/agency-coronavirus-cancel-nearly-half-scheduled-sports-events-2020

Gang, A. (in press). Changing landscape of civic engagement of fans: Understanding the ramifications of Covid-19 and the absence of face-to-face interaction in European football. Sport and the Pandemic.

Mazurkiewicz, M. (in press). Duties of the Heart: the Mass Mobilization of Polish Football Fans in the Face of Covid-19. Sport and the Pandemic.

Pedersen, Z. P. & Williams, A. S. (in press). Time to Get Real: The Influence of Sport on the Public's Recognition of a Global Pandemic. Sport and the Pandemic.

Shank, M. D. & Lyberger, M. R. (2015). Sports marketing. 이상학 외(2017). 스포츠 마케팅. 서울:현경사.

Stoddart, M. C. (2010). Constructing masculinized sportscapes: Skiing, gender and nature in British Columbia, Canada.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6(1), 108-124

Tamir, I. (in press). The deprivation of live sports broadcasts during Covid-19: Israeli sports fans during the global pandemic. Sport and the Pandemic.

The future of sports (September, 2015). Delaware North. http://www.gannett-cdn.com/usatoday/editorial/sports/The-Future-of-Sports-2015-Report.pdf

Two Circles(2020.4.20). Covid-19 set to halve 2020 sports calendar-new analysis. https://twocircles.com/us-en/articles/covid-to-halve-2020-sports-calendar/

Yoo S. K., Lim, C. H. & Chang, J. (2018). Media portrayal of foreign coaches in Korea and Vietnam.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6(4), 27-45.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

발간목적:

스포츠산업 이슈페이퍼는 스포츠산업 전반 현안을 집중 분석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포츠산업 성장에 필요한 대안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범준(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편집 위원: 전용배(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한진욱(경희대학교 스포츠산업경영학과 교수)
김세훈(경향신문 기자)
권형일(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유의동(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상훈(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민수(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고경진(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신성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보조연구원: 김태중(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초빙연구원)